

은행권 예금유치 불 붙었다

연 6%대 특판예금 출시 우대금리까지 직원 평가도 대출 아닌 예금유치 실적

지난 7일 E은행에 정기예금 4천만 원을 찾으러 간 자영업자 이모(여·45·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은행 창구직원에게 시달림을 당했다.

만기가 된 예금을 찾아 주식형 펀드 등에 재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창구직원이 “급한 돈이 아니면 고금리 특판예금에 넣어 두는게 어떻겠느냐. 어차피 펀드에 가입하려면 우리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들어달라”고 한사코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국 “급한 돈도 아닌데 거절하기도 뭐하고 우대금리도 제시해 연 6.1%짜리 1년 만기 예금에 2천만원,

M자산운용사의 국내 주식형 펀드에 2천만원을 나눠 가입했다”고 말했다.

주부 조모(여·54·광주시 동구 학동)씨도 지난 5일 집 근처에 있는 S은행 지점에 들렀다 이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만기가 된 1년짜리 정기예금 2천만 원을 찾으러 하자 창구직원이 VIP실로 안내하며 지점장과 면담을 시켰다. 잠시후 나타난 은행 지점장은 조씨에게 녹차를 제공하며 연 6.0%인 정기예금에 지점장 전결금리 등 0.2%포인트를 더해 주겠다고 예금 해약을 극구 말했다.

조씨는 “이전같은 상상도 못할 대접을 받았다”며 “잠시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펀드 수익률 등을 생각하면 성에 차지 않아 과감히 뿌리치고 나왔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주식시장 등으로 이탈하는 자금을 막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거나 다양한 유인책으로 고객 붙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들어 펀드와 주식으로 예금이 빠져 나가면서 자금난을 겪고있는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과 우대금리 등을 내세우며 자금이탈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 틈을 이용해 6년여만에 연 6%대의 고금리 정기예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외환은행은 정기예금 상품중 금리

가 가장 높은 연 6.3%의 ‘에스르기범예금’을 내놓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연 5.8%인 ‘플러스안심CD’ 상품을 영업점장 전결금리 등을 더해 사실상 6%대에 판매하고 있고 내년 초 새로운 고금리 정기예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급여이체, 카드가입을 하거나 대출 및 펀드상품에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다.

광주지역 시중은행의 한 창구직원은 “일부 은행들은 대출실적이 좋은 영업 창구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던 관행에서 탈피해 예금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하는 등 예금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예금 인출 횟수 7년여만에 최고

증시 활황 속 '머니무브' 현상 가속화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예금 회전율이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회전율은 예금 지급액을 예금 평균액으로 나눈 수치로, 이것이 높아졌다는 것은 자금 수요가 늘어 그만큼 예금 인출이 빈번했음을 뜻한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예금 회전율은 전달 4.0회에서 4.9회로 경총 뛰어올라 2000년 7월(4.9회) 이후 7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예금 회전율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10월 4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4.4회로 올라선 뒤 올해 6월까지 3.2~3.8회를 나타냈다.

그러나 주식 열풍이 불면서 지난 7월 4.4회로 뛰어올랐고 8월에는 4.2회, 9월 4.0회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월에 급반등했다.

은행 예금 가운데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을 잠시 예치해 두는 수단인 요구예금 회전율은 32.7회를 기록해 2003년 12월(32.7)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저축성 예금의 회전율은 1.3회, 저축성 예금 가운데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이 포함된 저축 예금은 2.5회로 각각 작년 10월의 1.4회와 2.5회 이후 가장 높았다.

이처럼 회전율이 급등한 것은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은행 예금이 증시로 이탈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지수는 9월 말 1,946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다시 부각된 10월 22일 1,904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10월 말에는 사상 최고치인 2,065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는 속도가 한층 빨라져 자산운용사의 수신 증가 폭은 9월 3조3천억원에서 10월 13조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고금리 특판에도 불구하고 고작 8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농협 무안국제공항지점(지점장 김동기·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최근 개점식을 갖고 금융업무를 시작했다. 개점식에는 고대석 무안군 부군수(7세번째), 김천성 무안군의회 의장(8세번째), 이덕수 농협전남지역본부 본부장(9세번째) 등이 참석했다. (농협전남본부제공)

세관 민원업무 클릭! 한번으로

광양세관 프로그램 서비스

광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은 11일 관세행정고객이 각종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한번의 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수입입부 등 8개 분야 100개 민원업무의 '민원신청서 서식부터 관련법령까지' 한번의 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고객이 쉽게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객들이 민원신청서 서식, 관련법령 등을 찾기 위해서는 일일이 세관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행남자기 노벨상 만찬상 올랐다

남북정상회담 이어 국내 식기 첫 공급



행남자기(대표 노희웅)가 남북정상회담 이어 노벨상 시상식 만찬식기를 공급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행남자기는 지난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올해의 노벨상 시상식 공식만찬때 사용된 식기 폴세트를 공급했다.

노벨 재단은 유럽 도자기 회사와 행남자기의 시제품을 면밀히 검토해 행남자기 제품을 만찬용 식기로 선정했다.

그동안 국내 식기류가 반제품

형태로 유럽에 수출된 적은 있으나 완제품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남자기가 공급한 노벨상 만찬용 식기는 노벨재단을 상징하는 색상에 식기 테두리에 금을 여러 겹 입혀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각 분야 최고를 의미하는 별을 형상화했고 제품 뒷면에는 노벨재단 마크를 새겼다. (사진)

행남자기 제품연구소 김태현 부사장은 “세계의 VIP가 모이는 공

식 만찬 식기라는 점에서 6개월 동안 고심해 제품을 개발했다”며 “도자기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벨 시상식 식기는 행남자기 직영점에서 오는 15일까지 전시되며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도 전시가 계획돼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삼성광주전자 “사업 축소 계획 정말 없다”

채동석부사장 “내년 매출도 올해와 비슷”

삼성광주전자 측이 ‘사업 축소 계획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11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센트럴호텔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통한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 지역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위원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서 삼성광주전자 채동석 부사장은 “내년 사업계획을 환율

880원, 금리 6%대, 유가 최고 100불 등 3고 경제여건을 감안, 보수적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채 부사장은 또 “저가형 제품의 해외이전은 불가피하지만 냉장고·세탁기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발주물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전체 매출은 올해와 동일하고 사업 축소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중소기업연원 김승일 박사가 ‘기업간 협력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박사는 2차 이하 하도급 거래에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과 자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 개선중심에서 기술·정보중심의 협력으로 전환 등에 대해 지적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단체·대기업 임원·협력 중소기업 대표 등 50명으로 구성돼 참여 대기업은 삼성광주전자·기아자동차·캐리어·엘지이노텍·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5개사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수출보험공사, 중기 대상 '한변동보험 지원 상품' 출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업을 위해 '한변동보험 특별지원 상품'을 내놓았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이 상품은 만기시점의 환율이 보험 가입시점 환율보다 하락해 환차손을 지급해 준다. 반면 환율이 상승해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익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가입대상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이며 한변동보험 가입실적이 없는 기업이다. 가입 한도는 업체당 30만달러로 보험료는 30만달러 가입시 1만천원 수준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년 광주도 휴대인터넷 서비스”

송기 유 KT 전남본부장



“내년에는 광주 시민들도 이동 중에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휴대 인터넷(와이브로·Wi-bro)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 부임한 송기유(46) KT 전남본부장은 11일 “지역 IT 선도기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와이브로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IT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T 지식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IT 서포터즈들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면서 친절하면 서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고객의 가치를 최

우선으로 하는 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흥 출신인 송 본부장은 부산 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사진=위정림기자 jrwi@

한식전문점 쫄안채

■ 생일전식/생크림/취급/직접목임

11월 24일 OPEN

그동안 손꼽힐 정도로 생생하고 유서 깊은 한식 전문점 그 실력을 입증해 한식 전문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상을 더차하게 오시겠습니다.

주소: 광주 동구 남동 52-3 남동성동 3층 301호

문의 전화: 062)234-8118-9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보일러를 50% 저렴하게 구매해서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 1인 가구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기간: 11월 12일 ~ 11월 31일)

※ 신청대상: 심야 전기보일러 구매 고객 (신청기간: 11월 12일 ~ 11월 31일)

※ 신청방법: 심야 전기보일러 구매 고객에게 신청서 발송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시나요?

심야 전기보일러 구매 고객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심야 전기보일러 구매 고객에게 특별공급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시험착용 품종 대상 참여

문의 전화: 010-9469-9373 (062)673-4961